

해외 주요 국가별 시멘트산업 동향



중국

타이완 시멘트, 중국 광동지역 공급가격 인상

타이완 시멘트(Taiwan Cement)가 지난 8월에 이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 광동 지역에서 제품 공급가격을 또 다시 인상했다. 이 회사는 광동지역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1톤당 20위안 인상한 340위안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타이완 시멘트 관계자는 “주강 삼각주 지역 건설경기가 활황을 보이고 있는 데다 10월 1일 국경절을 앞두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앞 다퉈 진행되면서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며 가격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시멘트 수요는 정부의 인프라 건설 확대와 함께 성수기인 4분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9월 시멘트 생산량 전월대비 4% 증가

베트남의 9월 시멘트 생산량이 전월대비 4%, 전년동월대비 9% 각각 증가한 5Mt을 기록했다고 베트남 통계청(GSO)이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1~9월 시멘트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4.8% 늘어난 43.3Mt을 기록했다. 한편 베트남 통계청(GSO)은 지난 8월 시멘트 생산량을 5Mt에서 4.8Mt으로 수정 조정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1~9월 시멘트 판매 전년동기대비 9.9% 증가

인도네시아의 1~9월 시멘트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4,299만3,000톤을 기록했다고 인도네시아시멘트협회가 발표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9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2만9,000톤에 비해 5.7% 증가한 563만2,000톤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의 시멘트 수요 증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마무리되기 시작하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5년 초부터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계절적 비수기(우기)의 영향으로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했다.

세멘 토나사, 파푸아에 시멘트 공장 건립 계획 발표

PT 세멘 토나사(PT Cemen Tonasa)가 파푸아에 2억4,700만달러를 투자하여 신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세멘 토나사의 웅골 아타스(Unggul Atlas)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시멘트 가격을 정적인 가격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멘 토나사는 조만간 서파푸아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여 500ha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공장 건립은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태국

2015년 태국 시멘트 수요 5% 증가 전망

2015년에 태국의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시멘트(Asia Cement)는 올해 태국의 시멘트 수요가 지난해와 비슷한 34Mt 규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은 이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 시멘트 마케팅 담당자는 “태국의 정정 불안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내년에는 경기 활성화 정책의 여파로 시멘트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

울트라테크 공장 신축 계획 ‘파란불’

인도 울트라테크 시멘트(Ultra-tech Cement)가 9.5Mta 규모 2개 공장의 신축 계획에 대해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주 정부의 승인을 획득했다. 이들 공장은 각각 군투르(Guntur)와 쿠놀(Kurnool)에 들어설 예정이다.

주하리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 나서

주하리 시멘트(Zuari Cement)가 인도 카르타카타주의 굴바르가에서 3.23Mta 규모 시멘트 공장 건립에 들어갔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주하리 시멘트는 총 10Mta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어 인도 남부에서 가장 큰 시멘트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인도 내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인도 남서부 및 북동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센추리 텍스타일, 마니카르 공장 증산 개시

인도의 센추리 텍스타일 앤 인더스트리(Century Textile & Industries)가 9월 26일부터 마니카르 시멘트 제2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멘트 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제2공장은 기존 마니카르 시멘트 공장의 생산라인을 확장한 것으로 2.8Mta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

3분기 시멘트 출하 전년동기대비 4.9% 증가

파키스탄의 3분기 시멘트 출하가 저조한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내수에서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9월까지 3개월간 파키스탄 시멘트의 내수는 9.9% 증가했으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했다.

파키스탄의 9월 중 시멘트 총출하량은 315만톤으로 전년동월의 294만톤에 비해 7.1% 증가했다. 내수 출하는 전년동월의 242만톤에 비해 13.9% 줄어든 212만톤을 기록했고, 수출은 전년동월의 81.6만톤에서 10.6% 감소한 73만톤을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서 라파즈와 홀심 합병 조건부 승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라파즈와 홀심이 합병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정거래위원회(CCSA)는 10월 1일 홀심이 아프리샘(Afrisam)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라파즈와 홀심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홀심은 수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철수했지만, 예외적으로 아프리샘 지분만큼은 보유하고 있다.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홀심이 아프리샘 지분을 보유한 채 라파즈와 합병을 하게 되면 정보공유를 통한 담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서의 공정하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아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홀심에게 양사 간 합병조건으로 아프리샘 지분을 3년 안에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PPC, 케소 고단 CEO 사임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시멘트회사인 PPC의 케소 고단(Ketso Gordhan) 대표가 지난 9월의 사임했다.

지난 2013년 초 취임한 고단 대표가 지난 9월 갑자기 물러나게 된 배경으로 이 사회와의 의견 차이가 꼽히고 있다. PPC는 그동안 내수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다른 아프리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왔는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고단 대표이기 때문이다. PPC는 2017년까지 회사 매출의 40%를 남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올린다는 계획 아래 르완다,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등에 공장을 건립하고 있다.

한편 PPC 측은 새로운 CEO를 선임하기 전까지 비상근 회장인 베키 시비아(Bheki Sibiyi) 체제로 운영된다.



이집트

내셔널시멘트, 과당경쟁으로 실적 '널뛰기'

내셔널시멘트(National Cement)가 2013회계년도(6월 결산 기준)에 9,350만이집트파운드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4회계년도에는 1억3,840만이집트파운드(미화 약 1,935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널뛰기 실적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에즈 시멘트, 토후라 1공장 가동 중단

이집트의 수에즈 시멘트는 환경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는 생산 설비를 감축한다는 지방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토후라 제1공장의 시멘트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아울러 수에즈 시멘트는 6,990만달러를 투자하여 제2공장의 환경 관련 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나

클링커 적재공간 부족 해소 위해 티마항 확장공사

가나 정부가 1억2,200만달러를 투입해 티마항 터미널 확장공사를 시작한다. 2015년 말까지 계속되는 터미널 확장공사가 끝나면 벌크선이 부두에서 시멘트 클링커를 적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티마항은 클링커 적재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심각한 시멘트 공급 부족 현상을 가져왔다. 이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당고테와 같은 주요 시멘트 업체들이 충분한 양의 시멘트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룬

에렌 홀딩스, 카메룬에 시멘트 공장 건립

터키의 에렌 홀딩스(Eren Holdings)가 카메룬에 시멘트공장을 건립한다. 이와 관련 에렌 홀딩스는 자회사인 메드셈(Medcem)을 통해 카메룬에 시멘트 공장을 건립하기로 카메룬 정부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카메룬의 시멘트 생산량은 기존 라파즈 산하 시멘캠(Cimencam)의 1.6Mta, 아도하(Adoha)의 0.5Mta에 이어 0.6Mta의 시멘트 생산량이 추가되게 된다. 이 외에 카메룬에서는 당고테 시멘트(Dangote Cement)가 10월부터 생산량 1Mta의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러시아

라파즈, 러시아 우랄시멘트 지분 전량 매각

프랑스의 라파즈그룹이 과도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우랄시멘트(Ural Cement)의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 부찌 유니켄(Buzzi Unicem)은 자회사 뉘커호프(Dyckerhoff GmbH)를 통해 라파즈(Lafarge)가 소유하고 있는 우랄시멘트의 지분을 전량 사들였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은 1억400만유로로 현재 관계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우랄시멘트는 첼리아빈스크(Chelyabinsk)로부터 남쪽 약 40km 떨어진 작은 도시 코키노(Korkino)에 위치해 있으며 처리용량 1.1Mta의 습식공장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에 부찌 유니켄이 우랄시멘트를 인수함에 따라 이 회사의 러시아 내 생산량이 4.5Mta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미카 시멘트 정상화, 연말까지 10만톤 생산

지난 4월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했던 미카 시멘트(Mika Cement)가 생산을 재개했다. 공장 책임자인 나이라 마티로스얀(Naira Matirosyan)은 “밀린 임금과 전기 요금을 모두 갚았고 다른 부채도 분할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측은 생산된 시멘트가 주로 내수용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가격 협상에 따라 조지아, 러시아 등 인근지역으로 수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미카 시멘트는 또한 제품의 다양화와 아울러 품질 개선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 경기 불황에 따라 최근까지 미카시멘트는 연간 12만톤에서 13만톤 가량의 시멘트를 생산해왔다. 불황 이전에는 37만5,000톤 가량의 시멘트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멕시코

라파즈, 멕시코공장 지분 엘리멘사에 매각

라파즈가 멕시코 공장 지분 47%를 엘리멘사(Elementia)에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2억2,500만달러다. 두 회사는 그동안 멕시코시에 인접한 중부지역에 3개 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멕시코 공장 매각은 라파즈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관계기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엘리멘사는 이번 매각을 계기로 기업공개(IPO)를 통한 시멘트 사업 확대, 추가 기업인수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콜롬비아

8월 시멘트 소비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

콜롬비아 통계청인 Dane는 지난 8월 콜롬비아 시멘트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한 1.02Mt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나리노(84%), 보야카(54.2%), 막달레나(46.2%) 등의 지역이 시멘트 소비 증가를 주도했고 쿤디나마르카(27.5%)와 안티오quia(22.7%)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콜롬비아의 1~8월 시멘트 소비는 11.5% 증가한 7.77Mta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노르트스탠더드와 막달레나가 각각 37.7%, 32.1% 증가했으나 코르도바는 26.8% 감소했다.

아르고스, 콜롬비아 보야카 지역에 생산라인 증설

시멘토스 아르고스(Cementos Argos)가 콜롬비아 보야카(Boyaca) 지역 소가모소(Sogamoso) 공장에 4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2.3Mta 규모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콜롬비아 최대 시멘트 업체인 아르고스가 소가모소 공장 증설에 나섬에 따라 수도 보고타는 물론 콜롬비아 중부지역의 시멘트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지리적으로 동부 대평원(Eastern Plains)은 물론 산탄데르(Santander), 북부 산탄데르(North Santander) 등과 인접해 있다.

아르고사사의 조지 마리오 벨라스케스(Jorge Mario Velasquez) 사장은 생산라인 증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번 대규모 투자는 콜롬비아의 발전적인 시장전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 2018년 새로운 생산 라인이 완공되면 아르고스의 콜롬비아 내 생산규모는 현재 9.5Mta에서 11.8Mta로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리니다드토바고

트리니다드시멘트 신용등급 강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가 트리니다드시멘트(Trinidad Cement, 이하 TCL)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 회사는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채무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현재 모든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S&P는 TCL의 신용등급을 'B'에서 'D'로 떨어뜨렸으며, 또 피치도 IDRs 등급을 'B-'에서 'D'로 강등시켰다. 이번 신용 등급 조정은 이 회사가 9월 30일 도래한 채무 변제약속을 어긴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TCL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약속했던 모든 지급을 동결하며, 향후 종합적인 구조조정 대책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9월 시멘트 생산량 보합세

아르헨티나의 2014년 9월 시멘트 생산량(수출물량 포함)이 105만4,294톤을 기록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3%, 전월대비 5% 각각 증가했다고 아르헨티나시멘트 산업협회(AFCP)가 최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지난해 9,566톤에서 8,863톤으로 감소했으며, 내수(수입 포함)는

104만5,852톤을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5.3%, 전년동월대비 0.3% 각각 증가했다.

한편 지난 1~9월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동기의 876만톤에서 840만톤으로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출처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4년 11월호 >

